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
성경	로마서 3:10-24
일시	2017년 12월 10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로마서 3:10-24)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튼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요약 자료♣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 (로마서 3:10-24)

1. 원죄의 시작입니다.
 - 1) 뱀이 여자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창 3:4-5)
 - 2)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창 6:4-5)
 - 3)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창 11:1-8)
2. 원죄의 과정입니다.
 - 1) 무속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행13:1-12)
 - 2) 점술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행16:16-18)
 - 3) 우상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행19:8-20)
3. 원죄의 결과입니다.
 - 1)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8:44)
 - 2)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출20:3-5)
 - 3)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마11:28)
 - 4) 육신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행8:4-8)
 - 5)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눅16:19-31)
 - 6) 모든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게 되었습니다. (마27:25).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묵회 자료♣

- 12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꼭 잡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12월 한 달은 증거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은 '부끄러운 삶'이 어떤 삶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증거 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잡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구원'을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첫 째는 여러분이 구원을 꼭 확인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아셔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은 컸다. 불신자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또 친척도... 제 이웃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증거 하는 곳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램넛들,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또 지금까지 많은 경험과 응답을 받고 계셨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저는 일곱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한다. 그 성품을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한다.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느니라."라고 증거한다. '하늘'과 '땅'은 그냥 지어진게 아니다. 이 땅이 태어나기...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사로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만든 모든 만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숨씨'가 다 들어가 있다.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 하실 때에 그대로 계속 그 '하나님의 선(善)하신 뜻'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악(惡)'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악(惡)'은 없지만 그 '죄'와 그 '죄악'을 형벌하신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돌아 올 때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일곱 가지로 간단하게 그의 성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훈에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다 졌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 살아온 이 땅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끄러움들'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 것을 확인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죄'와 '보이지 않는 죄'가 바로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뻔 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로마서 1장에 18절로 오늘 32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할 텐데... 이 수십 가지의 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첫 째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악'들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모욕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다. 또 사람에게 대하여는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불의'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밝으신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어둡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만 '씩어질 짐승', '씩어질 새', '씩어질 동물', '씩어질 사람'을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한다. 지금 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직접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끄러운 욕심들을 말씀드리겠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는 눈에 보이는 부끄러운 욕심들을 낫 낫이 증거하고 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해야 될 이런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다.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고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죄악이 지금도 들어나고 있다. 지금 이 땅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성에 대한 정체성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성'을 파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자연의 순리'를 인간이 파괴하고 있다.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눈에 보이는 부끄러움을 법으로 정해버렸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연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는... 29절에 보면 불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가 온 땅에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는 소리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한다. '능욕'하며 '교만'하며 '차량'한다. '악'을 도모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어리석다. 약속을 어긴다. 부정하다. 무자비 하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알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권리를 정하고 있던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일에 앞장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게 하나 있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 '경제인'들이 모르는 것.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 '지식인'들이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 계속... 욕심들이 들어나고 보이지 않는 악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는 '원죄'를 몰라서 그렇다.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에게는 선함 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없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뿌리가 바로 원죄이다. 이런 시작을 누가 했겠는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 바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 '원죄'에 근원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이다. 바로 원죄의 시작은 사탄에게서 시작 된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출현하게

된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동산에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나타나게 된다.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도록 만들어 버린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게 만든다. 그게 바로 원죄의 시작이다. 그 원죄의 시작에 누가 있었는가? 사단이 있었다. 그 원죄에...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원죄가 시작 된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이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다. 이 원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었고 '불신앙'이 있었고 결국엔 '죄'가 있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고 알지도 못 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에 '네피림'이라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 역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도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고대의 용사'라 하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계속되고 있었다.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 '창세기 6장 홍수'를 만나기 전까지도 '사단'과 '불신앙'과 '죄'는 여전히 있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았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만들자."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누가 있는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앙이 가득 차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가 가득 차있다.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오늘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화'라고 하는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무속의 문화'이고 '점술문화'이다. 그리고 '우상문화'이다. 이게 역사이다. 고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강대국치고 '점술', '무속',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사단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죄는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마귀를 숭배하게 되어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니... 정신과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육신은 세상의 그 어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번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저주가 후대에게도 그대로 물려간다. 이런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우린 해결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저는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보여졌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한 번 적용해 봤다. 특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구나!'를 깨닫게 됐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 곳에 치우쳤다. 무익한 존재가 됐다.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처럼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다. 내 입술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있다. 그리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결국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결론은 하

나눔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모든 악은 여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없다.'하는데서 악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이 시작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 누가 왕 노릇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마귀가 왕 노릇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트렸고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멸망과 파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 보셨겠는가?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겠는가?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와 멸망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묶인 인간,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지킬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있다.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있다. 근데 지키고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의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는 그 말씀을 주신다. 21절을 함께 읽어 보겠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 한다. 지금 이 율법은 곧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은 곧 모든 인간이 이 율법을 통해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근데 그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의'를 말씀해 주셨다. 그 의가 바로 22절에 증거하고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셨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다. 오늘 그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네 사람을 증거 하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고백 했을까? 시편 32편 1절과 2절에는 바로 다윗의 구원이 설명이 되어있다. 특히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허물'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려졌고 누군가 허물을 덮어 줬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누가 덮어 줬는가? 율법을 대하면 내 죄가 자꾸 들어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임이 자꾸 들어나는데? 계속 되는 아픔과 상처가 계속 되는데? 도저히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 때에 그 죄와 그 허물을 덮어버린 이가 있다. 그걸 다윗은 그리스도라 말한다. 다윗이 구원 받는 데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노력했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 하신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 오실 땅에 메시아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됐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이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걸 분명히 증거 해주고 있다. 우리 아브라함의 증거를 한 번 확인해 보겠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같이 한 번 읽어보겠다.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라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졌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졌던 선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 성경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모세이다. 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증 했겠는가? 모세가 가장 확신 있게 썼던 말씀이 창세기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때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복음의 씨앗을 모세가 기록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믿었던 것이다. 모세의 구원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의 믿음을 고백한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중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바울이 믿었던 복음의 능력은 뭘까? 바로 '십자가'와 '그의 피'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였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바울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와 그의 피였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의'가 어디서부터 출발 했는지 아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시는가? 바로 그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는 '그 의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가? 바로 그 의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용서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죄'와 '사탄'과 '지옥'을 깨뜨린 분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성경 66권의 주제이다. 성경의 내용은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 전 그래서 이 번 한 주간 동안에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나의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내 구원의 도구와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2018년을 살아가도 별 의미가 없다.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돈을 벌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세상의 지식
 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구원의 이 엄청난
 비밀을 놓쳐 버리고 세상의 성공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원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지옥과 죽음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건짐 받는 길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 말씀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말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
 로 저는 에베소서의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한다. 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 구원을 확인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
 '세상의 풍속인 사단/마귀에게 붙잡혔던 나' '내 욕심을 쫓아
 가다가 어느날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이 공활을 베풀어 주셨다. 그 공활
 이 곧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제가 받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예수라 믿으
 면 된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결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행할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을 여러분은 받았고 여러분
 은 누리시면 된다. 한 주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
 이었는데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p>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p> <p>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부 목사 : 이 응남 목사 연 락 처: (832)858-4885, (281)815-5361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p>
--